

## 독일의 이민전통과 언어/외국어교육정책

성 상 환  
(서울대학교)

Seong, Sang-Hwan. (2009). The tradition of migration and language policy in Germany.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2, 62-77.

This paper discusses the tradition of migration in Germany and its historical background. In particular we critically review the diverse types of migrants and the current situations in Germany.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the relations among the migration, education and language policy will be dealt with. It is argued that teaching both mother tongue and German as a second language is an integral part of the education system contributing to the integration of the migrant children in Germany.

**Key Words:** history of migration in Germany, migration policy in Germany, language policy for migrants in Germany, German as a second language, mother-tongue education for migrants

### I. 독일이주의 역사 및 이주정책

독일이 다문화사회를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오랜 역사 동안 끊임없는 이주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주에 대한 독일의 언어 정책적 대응은 바로 다문화관련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므로 독일이 어떤 이주정책을 펼쳤느냐는 바로 독일의 다문화관련 정책과 외국어정책을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활발한 이주와 이민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작금의 독일 사회의 다문화적 성격, 다민족적 성격, 다중 언어 사용의 전통은 역사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독일 사회를 발달시킨 끊임없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파란만장했던 독일의 역사와 이주의 관계는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매우 밀접하게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의 이주 양상은 독일에서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는 것과 독일이 새로운 정착지로서 이주자들에게 각광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기 위한 경유국으로 잠시 체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순서를 말하자면 우선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에서 19세기 말부터는 이주자를 받아들이는 나라로 이주형태가 전환되었으며, 이는 바로 경제적 필요에 의한 노동이주자를 시작으로 했다.

독일의 다문화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로 이주해 오는 경우가 주목할 대상이라 하겠다. 초기의 대표적인 이주의 예로는 17세기 칼뱅주의를 추종하여 프랑스를 탈출한 위그노파와 네덜란드인이 독일 프로이센 지역에 통합된 일이 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대규모 이주는 바로 노동이주였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독일의 외국인 이주는 1870년대부터 프로이센이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부문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은 폴란드인을 노동자로 대거 수입했다. 18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프로이센은 공업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어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농업부문에 50만 명, 공업부문에 70만 명가량의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하게 되었다. 하지만 프로이센이 다수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취한 규제정책은 이미 독일의 제한적인 이주정책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프로이센의 이주정책은 독일의 폴란드화를 막기 위한 국가안보차원에서, 하지만 독일에서 시급하게 필요했던 노동력의 충당이라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타협을 추구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을 금지시키고 강제노동에 동원하기도 했다. 제 1차 세계대전 말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는 약 200만 명에 이르렀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약 800만 명의 전쟁포로와 외국인 노동자 및 50만 명의 죄수들이 징용되어 강제노동을 했으며, 전쟁 말에 이들의 숫자는 760만 명에 이르렀다(박명선, 2007, p. 274; 김세연, 1999, p. 75).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옛 독일제국 영토에서 다시 추방된 독일 실향민들이 다시 대규모로 독일로 이주해 왔다. 특히 히틀러의 동방팽창정책에 의해 구소련연방 및 동유럽(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등)으로 이주했던 독일인들이 승전국에 의해 다시 독일로 추방되면서 1950년 당시 전 독일지역에 약 1,200만 명의 이주자(독일동방이주민(Aussiedler))가 발생하게 되었다(박명선, 2007, p. 275). 이러한 이주자들과 탈동독인들까지 합친 이주자들은 구서독의 경제재건 시기에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다. 또한 1955년에 이태리와 고용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고용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제조업 분야의 단순노동자 및 저임금 노동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명명하면서 본격적인 노동이주가 또 다시 진행되어 외국인 숫자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들의 숫자는 1973년에 260만 명에 이르게 되어 독일의 노동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독일정부는 이들의 유입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대부분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 정착하면서 가족을 불러들여 외국인의 수는 1980년 전체 독일 인구의 7퍼센트에 육박하게 되었다. 당시 고실업 등의 사회문제로 인해 독일인들의 “외국인 적대감정(Ausländerfeindlichkeit)”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박명선, 2007, p.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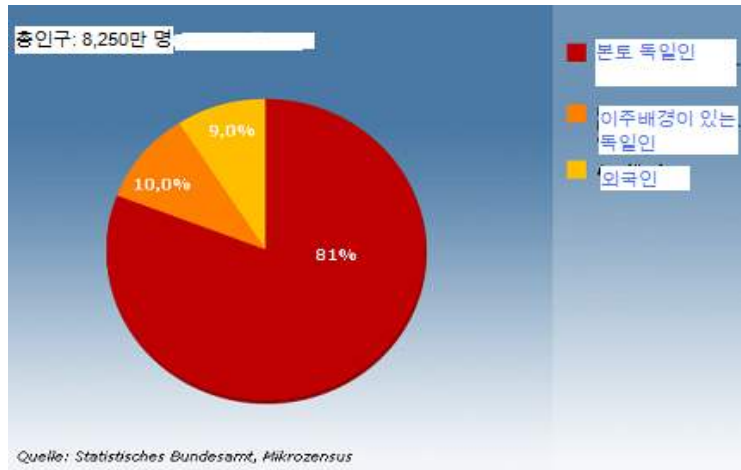
1970년대 말부터 독일은 전형적인 이민국가의 모습(김세연, 1999. p. 75)을 띠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 독일의 자유보수연합정권(1982-1998, 헬무트 콜 수상 집권 시기)은 독일이 이주국이 아님을 선포했으며, 외국인의 귀국을 법적으로 장려했지만 별 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서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붕괴 이후 대규모의 후기독일동방이주민(Spätaussiedler)을 수용하면서 이주민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구동독의 탄생과 함께 통독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독이주민 역시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그 숫자는 약 630만 명에 달했다. 이들 독일 실향민 내지는 독일동방이주민을 위한 통합정책은 독일 이주민 정책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외국인 난민이 독일 이주민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게 되어, 1992년 그 숫자는 180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독일의 난민법이 유럽에서 가장 관용적이라는 데 그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난민의 대거 유입은 독일인의 외국인적대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고, 1993년 독일은 새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이주를 제한하게 되고 1998년 난민의 규모는 110만 명으로 줄었다(박명선, 2007. p. 277).

## II. 다양한 이주형태 및 이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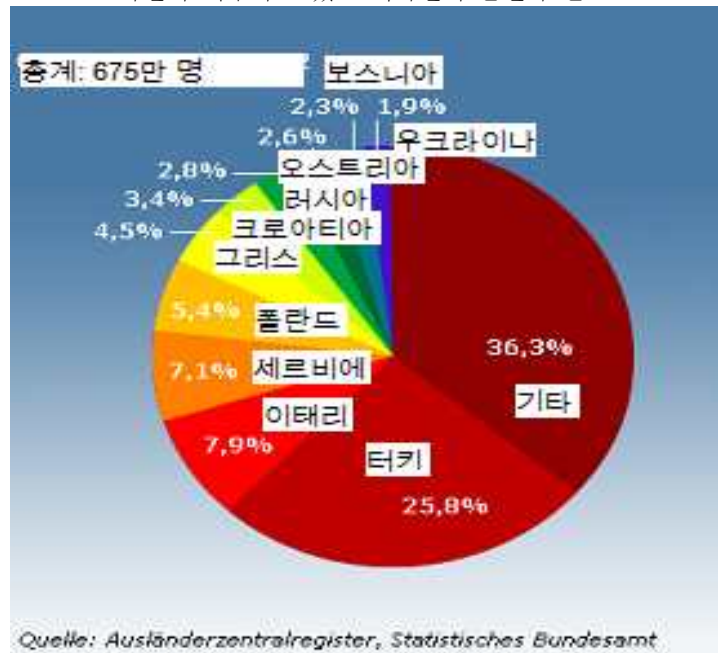
독일 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2002년도 말의 통계) 8.9퍼센트이며(이는 유럽에서 룩셈부르크, 벨기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이를 연방주별로 살펴보면, 함부르크주 → 베를린주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브레멘주 → 헤센주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순으로 외국인 비율이 많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주자들이 주로 선호했던 지역은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러하듯이 대도시 및 도시적 복합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독일 서부지역이었다. 그러나 2006년도 독일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이 이주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연방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바이에른주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니더작센주 → 헤센주의 순서로 최근의 이주자들은 중남부 독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통계에는 외국인의 비율이 10퍼센트로 증가했으며, 이주배경을 갖고 있는(독일에서 성장했고 독일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혈통은 외국인인 경우) 인구수를 모두 합하면 독일 전체 인구의 약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구가 다른 문화와 언어를 배경으로 독일 내 다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들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비슷한 비율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독일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용된 사회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림 1  
독일의 이주자 비율



(출처: 독일 통계청, 2005)

그림 2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출신국 분포



(출처: 독일 통계청, 2006)

독일이주자들의 출신국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이주의 형태 역시 매우 다양

하다. 이주의 법적 형태를 세분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이주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며, 이주자들이 어떤 법적 형태의 체류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들의 생활형편이 달라지기 되기 때문이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이주의 형태가 파악되고 있다.

- 유럽연합회원국에서의 이주
- 제 3의 국가에서 가족이나 배우자의 명분으로 나중에 독일로 이주하는 형태
- 후기독일동방이주민의 이주
- 구소련 지역 유대인들의 이주, 난민할당법에 따른 난민
- 망명신청자의 이주와 협약에 의한 난민
- 비유럽연합회원국에서 임용계약이나 계절노동 등의 명분으로 일 정기간 독일로 이주하는 형태
- 학생과 학자들의 이주(유학생)

1999년도 연방정부 외국인 문제 담당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독일이주자의 3분의 1을 이루고 있는 것은 후기독일동방이주민 및 그 가족들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나중에 독일로 이주한 독일인 가족이나 결혼이주자다. 이 경우에는 보통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자녀의 숫자가 적다.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학력이 높은 편이지만, 실질적인 직업교육은 받지 못한 상태다. 나머지 3분의 1은 난민 또는 망명자이며, 이들은(1999년도 당시) 체류허가가 묵인되어 있는 상태로 다년간 독일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두 번째 부류의 경우는 좀처럼 그 발달추세를 진단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한 이주형태를 숫자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절노동자
- 귀환한 독일인
- 유럽연합국가내 이주
- 외국 유학생
- 결혼이주 및 가족초청 이주
- 후기독일동방이주민 이주
- 계약노동이주 및 기타 노동이주
- 망명인
- 구소련연방의 유대인 이주자

하지만 이러한 통계자료를 교육 및 사회제도 영역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국적을 소지한 이주자가

통계자료에 모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무엇보다도 이주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기독일동방이주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가족의 경우 독일동방이주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국적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근 독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현대식 이주형태로 “다국적이주(Transmigration)”가 있다. 다국적 이주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이주라든가 이주수용국과 출신국 사이를 혹은 다수의 국가 사이를 오가는 “왕래이주(Pendelmigration)”의 형태를 말한다. 이는 독일 및 유럽의 경우, 특히 유럽연합의 개방적인 태도라든가 유럽연합 시민권 취득의 증가로 인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이주자들이 왕래하는 나라 간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하나의 구조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정보와 물품, 인적자원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교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세대를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출신국과 이주 수용국 간에는 대립관계가 아닌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이주자들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문화, 하나의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실생활을 하며, 이들이 머무는 공간은 “다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e soziale Räume)”이라고 불리운다.

이러한 다국적 이주의 형태는 과거의 고전적 의미의 이주와 구별되는 현재 및 미래의 이주형태로 더욱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이주가정 출신 젊은이들의 의식 및 인생관과 직업관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Fürstenau et al., 2003; Deutsche, 2000). 이들은 자신이 이주 수용국에 통합되었다 해도 언제든지 본국으로의 재이주나 다국적 이주 혹은 제 3국으로 재이주할 수 있다는 유연한 관점을 유지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주가정 자녀들뿐 아니라 본토 독일인 가정의 자녀들에게서도 높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젊은이들의 달라진 보편적인 현실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문화적 전통, 특히 이주자들과 함께 유입된 언어가 독일 이주자들 가운데서 적잖이 활발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이주자들의 문화는 이주자들에게는 특권을 부여받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다국적 이주가정 자녀들은 아무리 그들이 원해서 독일에 거주하고 있다 해도 그것을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나아가 자신의 미래설계 문제와 당연히 결부된다. 이들은 공간적인 유동성만이 아닌 삶의 역동성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이주가정 자녀들의 모국어와 축적된 문화적 체험이 직업전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독일 사회 전체를 볼 때,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독일의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지속적인 이주강화책을 펴야 하는 이유는 국가경영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많은 이주민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독일의 인구발달 동향 때문이다. 또한 여성들의 초산연령이 늦어지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상도 독일 사회가 이주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유다. 이것은 유럽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Nauck(2003)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이 이주민 수용을 적극 강화해야 하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아 출산율이 남아 출산율보다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성비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독일은 각 세대마다 인구유지에 필요한 정상수치보다 약 3분의 1 정도의 여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아마도 단순히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혹은 결혼을 위해 이주민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결혼이주는 앞으로 독일로의 중요한 이주 동기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또 다른 요인은 노령화 사회로 인해 서비스업, 특히 노인간호라든가 간병과 같은 특수한 서비스업에 종사할 젊은 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이주자들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나우크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더 나아가서 이주자의 상당수가 저임금의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주자들의 사회, 경제적 생활여건이 열악할 것이며, 그 결과 이주 가정의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민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독일에는 독일로 오는 이주자와 독일을 떠나는 이민자의 숫자가 전도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유럽국가 및 기타 이민국들과는 달리 독일에 체계적인 통합정책이 확립되어 있지 못했고 주로 개별적인 조치만으로 이주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나우크와 같은 학자들은 본다. 또한 이주자들 가운데는 다시 독일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직업교육을 포함해 독일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에 떠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독일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대표적인 여러 이민국들 가운데 이주와 이민의 전도현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므로 독일은 항시적으로 또다시 사회적 통합노력을 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인 셈이다. 게다가 고급인력 이주자들에게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은 나라인데 무엇보다도 독일이 통합을 위한 인프라 관리가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주를 계획하는 고급인력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나라의 교육시스템인 것이다(Laczko et al., 2002).

### Ⅲ. 이주와 교육시스템의 관계

독일에서 이주의 전개현황은 특히 교육정책에 도전을 주는 사안이다. 우선

은 인구구성면에서 그러하다. 대부분의 이주가정은 독일가정보다 교육 적령기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이주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주한 그 부모들 역시 교육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과 외국어교육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자료는 이러한 이주자들의 나이분포다. 독일의 경우 이주자들의 나이는 본토 독일인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젊은 편이다. 이는 이주자들이 본토 독일인들보다 자녀를 더 많이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그렇다. 독일 전체 부부 1,950만 쌍 중 130만 쌍이 부부모두가 외국인이고, 742,000쌍이 국제결혼을 한 부부다(1999년 통계). 또한 독일 가정의 약 50퍼센트가 자녀를 갖고 있지만,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경우는 약 60퍼센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의 경우는 거의 75퍼센트가 자녀를 갖고 있는 실정(2002년도 통계)이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독일교육의 성과 내지는 독일의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이주가정 학생의 성공적인 교육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현실로 드러난 일이기도 하다. PISA-연구라든가 IGLU-연구에서 독일이 저조한 성적을 보인 것은 이제까지 정규교육에서 이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책이 매우 부족했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렇듯 이주정책은 곧 교육정책으로 직결되며 교육정책은 바로 언어정책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변하는 이주현황을 고려하여 다문화교육과 언어정책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첫째, 이주가정 자녀들의 특별한 교육조건과 필요를 감지해야 하며 둘째, 그들의 교육조건과 필요를 종합적인 차원이 아닌 개별적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전체적인 삶의 조건과 지식,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발달 전개되어 갈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IV. 이주가정 아동들을 위한 언어/외국어 정책

독일의 이주가정 아동들은 사회화 경험과 교육에 대한 특수한 전제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들을 위한 언어교육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는 의무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취학 전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또는 아동 및 청소년 상담기관의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지원프로그램과 언어발달,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겨냥한 이주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이주아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언어지원책은 제 2 언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치(“제 2 언어로서의 독일어(Deutsch als Zweitsprache(DaZ))”)와 제 1언어(모국어)의 체계적인 학습 안이라고 할 수 있다.



## 1. 이주아동의 모국어 중시

이주가정 아동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중 혹은 다중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주가정 아동은 언어습득 시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두 언어를 사용하는 부류와 취학연령에 이주하여 그 후로 두 언어를 사용하게 된 부류로 분류된다. 독일의 이주가정 아동의 대부분이 전자에 해당되며, 그 중 약 70퍼센트가 독일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적잖은 숫자가 이중 언어 구사자로서 독일의 교육체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중 언어 구사자인 이주가정 자녀가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 편입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모국어는 오늘날의 대중매체나 기술적인 소통수단의 확산을 통해 계속 높은 수요를 갖게 될 것이다. 모국어를 중요시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출신종교와 모국어와의 결속력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고전적인 이주연구에서는 언어와 종교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미 밝혀낸 바 있다(Fishman, 1966).

## 2. 다양한 언어의 보존상태 연구

독일의 학생들 가운데 어떤 언어가 어느 정도로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진전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는 언어학습기획이나 언어교육에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연구가 함부르크(Hamburg)와 에센(Essen) 두 대도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약 100가지의 언어가 통용되고 있었으며, 언어사용집단의 크기와 언어의 보존도가 반드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전에는 대개 2-3세대가 지난 후 주변의 주요언어에 동화되는 것이 이주 과정에 따른 언어발달의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인구라든가 기술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이주가정 아동들은 이중 언어 구사자라는 사실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독일사회의 일반적인 통용어인 독일어의 입지와 기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일차적인 소통어다. 이주자가 외국에서 오래 동안 사용한 자신의 모국어는 그의 모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국어에서 변형된 형태로 발전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을 밟기 시작할 때에 이주가정 아동을 위한 ‘언어수준평가’ 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국어 수업이 모국어 발달에 끼치는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3. 이중 언어 구사력의 이점 - 모국어학습 강화

이중언어구사는 또 다른 언어학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학적,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조기 이중언어구사는 결코 언어발달을 저해하지 않으며 차후의 언어능력 및 인지발달에도 중요한 이점을 갖는다고 한다. 이러한 학문적 인식을 토대로 이중언어구사력은 체계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 1언어(모국어) 후원은 제 2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보통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처럼 (Bot, Driessen, & Jungbluth, 1989) 분리해서 모국어로 추가 수업을 하는 것은 성적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제 2언어(독일의 경우 독일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1)적절한 시간을 두어야 하며, 2)모국어 수업과 제 2언어 수업의 교수법을 연관시켜야 하고, 3)학교에서 언어프로그램을 통용화해야 할 것이다. 미국 (Thomas & Collier, 1997)과 네덜란드(Codina et al., 1999)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이를 전체 학교가 수용하고 후원하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한다. 학교효율성 연구에서도 이주가정 학생들의 특수한 언어체험과 같은 본래 주어진 능력과 경험을 차별하지 않고 능력으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이를 지원하는 학교는 더욱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모국어 지원의 기간 및 강도와 제 2언어 습득의 성공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언어지원과 각 과목의 성적 간에도 분명한 관계가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성공적으로 학교교육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다년간 제 1언어를 매개로 해서 각 과목 수업을 한 경우다(Thomas & Collier, 1997). 특히 입학 때부터 전 학년 내내 수준 높은 교양어를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다. 모국어로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것은 수준 높은 언어 능력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모국어로 읽고 쓰기(문어)를 가르치면 제 2언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한다(Verhoeven, 1994). 일반적인 언어습득연구에 따르면 단일어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연상적인 의사소통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문자가 개입된 언어습득이 필요하다고 한다(List, 1992).

### 4. 모국어 수업의 기술적인 문제들

교수법적인 면에서는 언어수업이 언어 그 자체를 배우는 데에 국한되는 것보다 비언어 영역 과목의 수준 높은 내용을 다루면서 언어습득을 병행하는 수업이 더욱 성공적이다.

이주가정 아동을 위해 학교에서 후원할 때 중요한 또 다른 조건은 모국어 수업의 기간이다. 학생 개개인의 입학 초기 언어수준에 따라 언어능력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전문어와 학교에서 통용되는 교양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복잡해지고 추상화되기 때문에 모국어 수업 기간을 5-10년은 잡아야 한다(Hakuta et al., 2000; Thomas & Collier, 1997).

동시에 모국어 수업의 수준문제가 대두된다. 어떤 과목을 모국어 수업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외에도 제 1언어와 제 2언어 지원프로그램은 교수법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실시한 모국어수업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사적이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언어집단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연구에 의하면, 보스니아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를 말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어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독일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터키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Grosse, 2000).

## 5. 이중언어학교(Bilinguale Schule)의 성과

특히 지금까지 독일에서 모델로 시행된 균등하지 않은 비율로 혼합된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미 시행해 본 모델인 이중언어학교의 취지는 1)단일어를 사용하는 독일 아동들에게는 다른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에게는 모국어 수업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동들의 DaZ 습득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한다.

### <사례>

- 함부르크의 실험적인 학교에 대한 최초의 평가결과를 보면, 독일어를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아주 조금 알고 있는 채로 입학한 아동들은 월등한 발전을 보였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첫 학년에서 이미 독일어 과목에서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된 외국어에서도 뚜렷한 발전을 나타내었다(Gogolin, Neumann, & Roth, 2003b). 하지만 실험대상이 된 학급들은 이제 겨우 3학년 학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다.
- 볼프스부르크(Wolfsburg)에 있는 ‘독일어-이태리어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간의 전체 평가가 종결된 상태다. 이는 이태리어에 대해 좋은 결과를 내었으며 다른 아님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의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나 단일언어를 구사하는 독일 학생들과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아동들 간의 독일어 성적 차이는 뚜렷했다. 이중언어구사자 그룹은 전체적으

로는 좋은 평가점수를 얻긴 했지만, 이중 4분의 1은 여전히 DaZ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Sandfuchs & Zumhasch, 2002). 그 원인을 연구자들은 제 2언어 지원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기에 제 2언어 수업을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이 보여준 결과는 다시금 다문화 언어교육정책에서 모국어 지원 문제와 DaZ 지원 문제가 서로 대치되는 문제가 아니라 보완되는 문제이며 또한 그 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DaZ 수업의 효과나 DaZ 학습에 미치는 모국어 후원의 효과에 대해서 단지 산발적이고 지엽적인 연구만 이루어져 있을 뿐이다. 이에 미국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수 있겠다. 이는 독일의 혁신적인 다문화교육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하나의 문제의 지평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문제들이 이주아동을 위한 혁신적인 언어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때 교육자의 자질 및 자격요건과 프로그램의 성공여부 가능성 그리고 성공모델의 적용 가능성의 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지금까지 어떤 ‘제 2언어’ 지원조치가 행해졌으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은 각각 무엇이었는가?
- 다양한 이중언어교육 모델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가? 어떤 점을 단일어 수업인 DaZ 수업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 이주아동의 모국어로 하는 수업의 어떤 요소들이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습 집단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 언어지원 프로그램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학교 이외의 기관, 특히 이주민 공동체(Communities)와 같은 기관들은 이주민 언어지원정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학교와 이들 단체와의 최상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아동의 언어적 강점을 겨냥한 최상의 언어지원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아동과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두 언어를 매개로 공동학습을 하는 이중언어수업 구상은 이주아동의 제 2언어 습득과 단일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언어발달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가? 완벽한 모국어의 구사는 제 2언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가?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이중언어구사력이 발달하고 있는가?

## 6. 학교의 언어

이주아동의 경우 이중언어구사력은 이주국에서의 교육과정의 전제조건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취학 전 교육기관이나 학교교육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이중언어구사 현상은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영향력을 계속 갖는다. 그 예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PISA연구결과다. 15세의 이주배경이 있는 학생들은 독일에서 학교과정을 이수했는데도 이주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보다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학생과 동일한 언어지원을 받게 될 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문화교육연구에 따르면 독일학교에서 언어지원 프로그램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이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이라고 한다.

- 지원프로그램이 독일어에 집중되어 있다.
- 이주아동의 언어지원 문제를 과도기적인 문제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집중지원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지원조치가 종결되면 이중언어구사라는 특이한 현상이 제거되리라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학교와 수업에서 충족시켜야 할 이주아동의 특수한 언어적 요구에 대해 준비자세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육과정을 동반한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언어”로서의 독일어는 일상에서 쓰이는 다양하게 변형된 언어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문맥이 중요하고 의미전달 및 연상적이고 구체적이고 도해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반면, 학교에서 학습되는 독일어는 내용이 없는 기능적인 언어요소라든가 복잡한 문장구조, 상징적인 관용표현 등을 다룬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언어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어휘라든가 복잡한 문장해독력 등은 더욱 더 요구되므로 갈수록 일상어와 학교언어 간에는 격차가 심해지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학교언어는 일상어인 구어의 대화방식보다는 문어(Schriftsprache)의 의사소통 규칙과 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학교 자체가 이러한 특수한 언어형식을 전달하는 제도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의 일차적인 과제는 문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고학년 수업에서 요구하는 언어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문어를 많이 대하는 이주가정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가정에서도 문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동들의 경우 문자와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밖에 없는 것이다(Reich & Roth, 2002, p. 39).

취학 전에 혹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학교언어로서의 독일어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학 전 단계 교육기관에서 아동의 언어지원프로그램을 늘리는 일은 그야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는 이주가정의 아동 및 교육수혜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동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처음부터 더 나은 조건에서 교육과정에 입문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입학 후에도 지속적인 언어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 V. 결어: 언어/외국어교육과 관련한 다국적 교육의 필요성

1970년대에는 독일에서 노동이주자의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곳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다국적 이주라는 발상은 본국으로의 완전귀국이라든가 독일어만 통용되는 독일의 학제에 완전 동화되는 것 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국적 이주라는 배경하에 필요한 교육은 독일과 본국의 교육시스템을 오가며 학교를 다니는 아동 및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이다. 경제와 노동시장의 발달로 인해 이동의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확장과 같은 정치적 사안도 인간의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동식 교육”의 가능성 문제는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전면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동식 교육의 전형적인 패턴은 국제적인 고급인력의 이주(이동)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국적 교육은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국가 상호 간의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형식적인 규정도 제정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육과정의 경우 이를 이수하면 여러 국가에서 아무런 절차 없이 무조건 인정되는 규정이 있다. “공동 유럽 참조기준(Gemeinsame Europaeische Referenzrahmen)”과 “유럽언어포트폴리오(Europäische Portfolio für Sprachen(EPS))” 혹은 대학교육 과정에서 “유럽학점교류체제(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ECTS))”가 그 시범 케이스이다. 이러한 시범적 프로그램은 혁신프로그램에 도입되고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는 엄청난 “언어적 자원”이 축적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 이 자원의 사회적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를 국가적 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세연. (1999). 독일의 외국인 정책 연구. *유럽연구*, 10, 71-88.

- 박명선. (2007). 독일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 회학*, 41(2), 271-300.
- Bot, K., Driessen, G., & Jungbluth, P. (1989). *De effectiviteit van het onderwijs en eigen taal en cultur*. Prestaties van Marokkanse, Spaanse en Turkse leerlingen. Nijmegen.
- Codina, E. (1999). *Van eerste taal naar tweede taal. Een onderzoek naar de opbrengsten van het OET-programma Trias*. Rotterdam.
- Deutsche, S. (Ed.). (2000). *Jugend 2000, 13. Jugendstudie, Band 2*, Opladen.
- Fishman, J. A. (1966). *Language Loyalty in the United States*. Den Haag: Mouton.
- Fürstenau, S., Gogolin, I., & Yagmur, K. (2003). *Mehrsprachigkeit in Hamburg. Ergebnisse einer Sprachenerhebung an den Grundschulen in Hamburg*. Münster: Waxmann.
- Gogolin, I., Neumann, U., & Roth, H. J. (2003a). Fö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Bund-und-Länder-Kommission fü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förderung. Materialien zur Bildungsplanung und zur Forschungsförderung, Heft 107. Gutachten von Prof. Dr. Ingrid Gogolin, Prof. Dr. Ursula Neumann, Prof. Dr. Hans-Joachim Roth, Universität Hamburg.
- Gogolin, I., Neumann, U., & Roth, H. J. (2003b). *Schulversuch Bilinguale Grundschulklassen in Hamburg*. Hamburg: Universität Hamburg.
- Grosse, I. (2000). Die Bedeutung der Muttersprachenförderung für den zweispracherwerb. Eine Untersuchung zur Deutschkompetenz von Migrantenkindern aus Ex-Jugoslawien und der Türkei. Wien.
- Hakuta, K., Butler, Y. G., & Witt, D. (2000). *How long does it take English learners to attain proficiency?* (Policy Reports). CA: Stanford University.
- Laczko, F., Stacher, I., & Von Koppenfels, A. K. (Eds.). (2002). *New challenges for migration poli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Hague: Asser Press.
- List, G. (1992). Zur Entwicklung muttersprachlicher Fähigkeiten. *Deutschunterricht*, 44, 15-23.
- Nauck, B. (2003). Demographische Entwicklungen und Gründe für weitere Zuwanderung nach Deutschland. Vortrag zum 1. workshop "Förder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mit Migrationshintergrund"

- der BLK-Projektgruppe "Innovationen im Bildungswesen".  
Hamburg, 28./29. Januar 2003 (Manuskript)
- Reich, H. H., & Roth, H. J. (2002). *Spracherwerb zweisprachig aufwachsender Kinder und Jugendlicher. Ein Überblick über den Stand der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Forschung*. Hamburg: Beorde für Bildung und Sport.
- Sandfuchs, U., & Zumhasch, C. (2002). Wissenschaftliche Begleituntersuchung zum Schulversuch Deutsch-Italienische Grundschule Wolfsburg - Reflexionen und ausgewählte Ergebnisse. *Interkulturell, Heft, 1(2)*, 104-139.
- Thomas, W. P., & Collier, V. (1997). *School effectiveness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NCBE No.9). Washington D.C: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Education.
- Verhoeven, L. (1994). Transfer in bilingual development: The 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is revisited. *Language Learning, 44(3)*, 381-415.

성상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7685  
이메일: sseong@snu.ac.kr

Received on June 18, 2009  
Reviewed on Oct 19,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12, 2009  
Accepted on Dec 4, 2009